

# 광주 후면 번호판 단속...이륜차 속도·신호 위반 '뚝'

### 수완지구 1곳...3개월 계도 거쳐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 신호 무시 배달라이더 등 감소...광주경찰 "올해 10곳 추가"

"빨간불에도 그냥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확연히 줄었죠. 다른 곳에도 확대 설치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강화됐으면 합니다."

22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과속·신호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후면 번호판 촬영 장비가 설치된 이곳에서는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줄었다.

현재 기존 광주에서 유일하게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적발하는 장비가 설치된 이곳은 지난 1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전면을 찍어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던 기존 장비는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이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선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장비는 하남산단 방면으로 향하는 차

량들을 찍고 있는데, 촬영 범위에 들어 오기 전 '후면 번호판 단속 중', '신호·과속 단속장비'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판을 통해 단속 중임을 알리고 있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 덕분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 거의 모두 신호는 물론, 제한 속도 '시속 50km'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는 모습이였다.

특히 전면 번호판 촬영 장비가 설치된 다른 단속지역에서 이륜차들이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달리 이곳에선 제자리에 멈춰 초록불로 바뀌길 기다리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었다.

실제 계도기간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7일 동안 이곳에선 신호위반 2건, 과속 38건 등 총 330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중 이륜차의 위반 행위는 과속 32건에 그쳤다.



22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과속·신호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후면 번호판 촬영 장비가 설치된 이곳에서는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주성학 기자

이 덕에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들은 "훨씬 안심된다"고 입을 모았다.

수완지구 주민 박모(45·여)씨는 "점심시간 때 배달량이 많아서 그런지 신

호와 관계없이 썰렁 지나가던 오토바이들이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설치 이후 확연히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곳에도 확대 설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은 오는 6·7월 중 ▲동구 급남로 47역 사거리 ▲서구 상무대로 혼다매장 사거리 ▲서구 상무대로 구)호남대 삼거리 ▲남구 효덕로 광주대 사거리 ▲북구 서하로 북부경찰서 사거리 등 6곳에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후엔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와 마찬가지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4개소에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 무등록 원동기 무면허 운전·타인 번호판 절도 미수 각각 '벌금형'

법원, 150만원~300만원 선고

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를 운전하거나, 타인 원동기의 번호판을 뜯어 자신의 것에 달려고 한 이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도로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함에도 A씨는 무면허였고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호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0대)씨에게 300만원

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한 도로에 세워진 원동기에서 번호판을 뜯어 자신의 것에 부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받는다.

미리 드라이버를 소지해 간 B씨는 관련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B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안재영 기자

## '텍사스 홀덤'으로 800여만원 날린 50대 '벌금형'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250만원

'텍사스 홀덤'에 수백만원을 쓴 50대 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벌금까지 합하면 총 1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쓰게 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2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께 광주 한 홀덤룸에서 한 게임당 5만원 내지 10만원의 판돈을 내고 카드 두 장을 받은 뒤 다른 참가자와 공유하는 카드 5장과 의 조합으로 '높은 패'가 나온 사람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도박 '텍사스 홀덤'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31일까지 A씨는 이곳에서 총 86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감형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8명은 1심에서 각각 7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

## 광주 동구 미양산 화재 한 달여...원인 '미상'

방화 혐의자 수사했으나 특정 못해

지난달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에서 난 산불에 대한 조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 '원인 미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22일 동구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미양산 주변 CCTV 분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미양산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9분께 발생, 같은 날 오후 4시 57분께 완

진됐다.

이 불로 인해 소방 추산 총 1만1천500㎡(1.15ha)가 소실됐으며 나무 22그루가 타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완전 후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미상인에 의한 쓰레기 소각 부주의 발화"를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구 특사경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방화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조만간 '원인 미

상'으로 미양산 산물 수사를 종결 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 및 책임자가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 및 복원 금액 등을 청구하려 했으나, 원인 및 책임자 특정이 어려워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산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산을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산출한 뒤 내년부터 복원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 술 취해 경찰에 흥기 휘두른 50대 구속

태이저전 썬 제압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흥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거리에서 술에 흥기를 쥐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흥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쏘 제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체포되기 직전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한 명을 죽이겠다.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며 불특정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이육근 기자

소화기로 이웃 폭행 50대 구속영장

술에 취해 이웃집의 잠금장치를 부수려다 이를 말리는 이웃을 소화기로 폭행한 50대가 구속 기소에 놓였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 폭행 혐의를 받는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원름복도에서 소화기로 이웃집 도어락을 내려쳐 부시던 중 피해가 구 거주민 등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키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함께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지원연락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